



“로코에 도전!” 연기자 김재욱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tvN 새 수목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tvN ‘그녀의 사생활’ 첫 로맨틱 코미디 도전 김재욱

‘갖고 싶어요’ 답살 대사 감독님 붙잡고 헬프 미~



“내가 진짜 로코를 바랐구나 자기 최면도 많은 팬들 새로운 모습 기대...기분 좋아”

연기자 김재욱(36)이 파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꽃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2017년부터 공격적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에 참여한 그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주인공까지 맡았다. 무대는 10일 첫 방송하는 tvN ‘그녀의 사생활’. 김재욱은 풋풋한 사랑 이야기로 시청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스스로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연기를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게 됐다.

●“로코” 주인공, 참 기분 좋은 일

김재욱은 ‘그녀의 사생활’ 출연을 결정하고 ‘그토록 원하던 ‘로코’(로맨틱 코미디) 주연’(스포츠동아 1월 30일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우연히 접했다. 그는 “내가 진짜 로코를 바랐구나”라고 최면을 걸 수 있었다”며 웃었다. 대중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이를 해석하며 새로운 다짐을 내걸었던 셈이다.

김재욱은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그녀는 사생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하는 즐거움을 나열했다. 자신보다 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참 기분 좋은 일”이라며 미소도 지었다.

“로코에 도전하는 등 저의 밝은 모습을 많은 분이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기자로서 굉장히 행운이고 감사하다. 전자 ‘손 더 게스트’가 무섭고 강한 소재(빙의)를 다루 마음껏 즐기지 못한 분들이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 이번 드라마는 보는 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이다.”

김재욱은 ‘손 더 게스트’를 포함해 앞서 출연한 ‘사랑의 온도’ ‘보이스’ 등에서 차갑고 이지적인 매력을 주로 드러냈다. ‘보이스’에서 연쇄살인마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한 덕분에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지금과 같은 공격적 행보를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서늘한 분위기가 대중과 친근함을 쌓는 데 다소 장벽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야말로 제대로 분위기를 만전한다. 극중 김재욱은 외모면 외모, 실력면 실력 등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미술관 관장 라이언 폴드를 연기한다. 어린 시절의 아픔으로 타인과 접촉을 극도로 기피하며 까칠한 성격의 그는 하지만 속내는 다정다감한 ‘츄데레’ 캐릭터다. 상대역 박민영과 풋풋하면서도 뜨거운 연인 호흡을 맞춘다. 장르 성격상

여심을 설레게 하는 장면과 대사를 마음껏 소화한다. 이에 대해 연출자 홍중찬 PD는 “김재욱은 멜로에 어울리는 완벽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왜 도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드라마를 통해 친근하다 못해 ‘허당미’ 가득한 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줍게 웃는 김재욱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로 상대 여배우에게 내뱉는 ‘갖고 싶어요’를 꼽았다.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지 몰라 감독님을 붙잡고 얘기했다. 촬영하기 전부터 굉장히 고민했고, 촬영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았다. 하하! 설레고 기분 좋은 봄날 예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예쁜 이야기를 기대해 달라.”

●“정신·체력적 부담은 새 작품으로 회복”

김재욱은 최근 2년간 쉬지 않고 연기활동을 벌여왔다. 2017년 ‘보이스’를 시작으로 ‘사랑의 온도’와 ‘손 더 게스트’에 잇따라 출연하며 연기 갈등을 해소했다. 연기자로서 긴 공백 없이 다양한 작품으로 시청자와 만나는 기회는 더없이 행복하지만,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어렵다.

이를 위해 김재욱은 재정비하는 방법을 바래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그동안 한 작품에 쏟아내던 집중했던 시간을 개인적인 활동으로 회복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힘에 부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된다”면서도 “막상 작품을 선택한 뒤 현장에 투입이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명달아 자신감도 높아져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동료들의 존재도 든든하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김재욱은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맞추는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만난 스태프, 출연자들과 한 팀이 되어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며 팀워크를 강조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김재욱

▲1983년 4월2일생 ▲2005년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졸업 ▲2002년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로 데뷔 ▲2007년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주목 ▲2008년 제16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영화배우 신인상(‘서양골동양과자점 앤트릭’) ▲ 드라마 ‘바람의 나라’ ‘나쁜 남자’ ‘보이스’ ‘사랑의 온도’ ‘손 더 게스트’ ▲영화 ‘나비집’ ‘다른 길이 있다’ ‘택배우주’ ‘두 개의 연애’ ▲뮤지컬 ‘헤드윅’ ‘아마데우스’

교육·퍼즐

에듀윌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대비 TIP

주택관리사 확실한 합격, ‘핵심 판례 분석’이 답이다!

작년도 치러진 제21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그중 1차 과목인 민법은 판례와 조문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험이었다. 전체 40문제 중 판례에서만 총 32문제가 출제돼 80%가 판례와 관련된 답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조문의 내용에 관한 문제도 6문제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문제 중 조문을 중심으로 답이 형성된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어 그 중요성이 입증됐던 시험인 것이다.

이에 에듀윌 주택관리사 민법 신의영 교수는 “22회도 21회와 출제 경향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다. 다만 난이도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예견된다”라며 특별히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어느 한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조문 중심으로 충분히 해석한 후 이와 관련한 판례, 그리고 평석을 일체로서 학습하는 것이 민법의 합격점에 도달하는 비결이며, 나아가 주택관리사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하



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에듀윌 주택관리사 과정은 보다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핵심 판례를 학습해야 하는 점에 집중했다. ‘민법판례 정복특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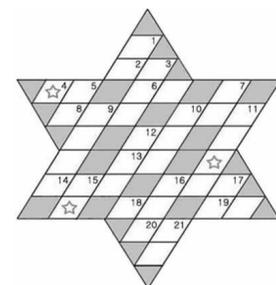
본 특강은 크게 두 가지 커리큘럼으로 나뉜다. 먼저 과거 출제된 조문 및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한 후, 이후 22회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해당 특강에 대해 “자주 출제되는 판례의 집중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판례와 핵심 조문을 동시에 학습해 시간 투자를 줄이고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날말문제



■ 가로 열쇠

02. 겹칠이나 가족을 벗김. 04. 말하는 바로 이때. 06. 꿈에 나타난 일을 풀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함. 08. 물이나 술 따위를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10. 연극이나 영화 촬영에서, 무대 장치나 분장에 쓰는 작은 도구류. 12. 몸이

둥글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에 손잡이가 있는 집그릇. 13.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14. 사람이 살지 않는 섬. 16.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18. 짐승이나 물고기 따위를 세는 단위. 19. 생기 있게 살아 움직임. 20.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 세로 열쇠

01.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03.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05.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고 끊음. 07. 길게 줄을 지은 모양으로 늘어선 여러 개의 섬. 09.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10. 그리던 까닭. 11.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라는 뜻으로, 꼬불꼬불하고 험한 산길을 일컫는 말. 12. 침구학(鍼灸學)

을 배우는 데 쓰는 인체도. 15. 어질과 의로움. 16.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한 것. 17. 저절로 나서 자람. 21.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줌.

■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서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포츠 스타 이름이 됩니다.

